

K-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입증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레저스포츠 분야 전국 최초 4년 연속 선정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전국 최초 4년 연속 선정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명실상부한 'K-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드론 레저스포츠의 국제적 저변 확대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계 각국의 대표 리그들과 연맹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국제드론레이싱연맹(FIDRA) 본부를 남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 규정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드론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누구나 즐기는 드론 스포츠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제1회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드론 리그 대표들과 국제 세미나를 여는 등 꾸준히 글로벌 기반을 닦아왔으며, 국산 드론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요 창출을 위한 시민 참여형 사업도 본격화된다.

또한 '찾아가는 드론교실'과 연계하여 관내 학교와 복지관을 대상으로 국산 기체 교육을 실시하고, 드론 스포츠동호회 육성을 지원, 특히 지난해 15개 기관에서 2,2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산 기체를 도입하여 교육 계층을 확대하고 '드론 스포츠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사업'을 신설해 '일상에서 즐기는 드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남원시의 드론 산업은 산업 축제로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부터 지난해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까지 누

적 관람객 58만 명을 기록하며 드론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국산 제조 엔지니어 기업 유치와 방산 산업으로의 확장에 전력을 다하며, LG에너지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 부품 제조기업인 (株)블로렌드와의 MOU 체결도 앞두고 있어 제조부터, 실증, 레저가 결합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시장은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선정은 남원시가 글로벌 드론 산업의 선도 거점임을 대내외에 입증한 결과"라며, "드론 스포츠의 글로벌 표준을 남원이 주도하고, 국산 기체 제작 산업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남원을 세계적인 드론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정기부 조기 달성

임실군, 모금 시작 한 달여만 성과

임실군의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반려인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임실군 모금 목표액은 조기 달성했다. 군은 최근 심 민수수와 기탁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기부 사업 활성화화를 위한 기탁식을 열고, 1천만원의 모금 목표 달성과 함께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번 성과는 오수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기탁식에서는 오수반려문화도시 추진협의회(회장 심재석)와 의경문화재



전위원회(회장 박세근)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총 7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것이 목표액 조기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며 담초 6월까지 계획했던 모금 기간을 4개월이나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반려동물의 성지'로 불리는

임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을 다시한 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금된 1,000만원은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약 13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정기부 모금 성공을 발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양공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모금(12월까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오수 세계반려동물산업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임실N플랫폼'을 통해 반려문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경의상가 리모델링 사업 장기 표류, 지역사회 갈등 초래"

한명숙 남원시의원 대책 마련 촉구

한명숙 남원시의원 의원은 지난 11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의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장기 표류와 주변 상권 위축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의상가 리모델링 및 먹거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3년째 뚜렷



사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체

계적인 성과 분석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효과와 방문객 체류 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 △상인·주민·전문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민간 주도 상권 거버넌스 구축 △장기 안심상가 계약 유도과 자율기획 사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 등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순창장류축제 모습.

'예비 글로벌 축제' 순창장류축제

문체부 선정...K-푸드 발효문화 대표축제로 세계시장 도약기반 마련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되며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해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를 선정했으며, 순창장류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올해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서면평가, 해외 인지도 조사, 발표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순창군은 지난 3월 한 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발표평가에서 순창장류축제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발효문화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장류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발효 식품인 고추장·된장·간장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장류 특화 축제로, 2006년 제1회를 시작하여 2014년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제21회를 맞이했다.

특히 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를 기반으로 장 담그기 체험과 발효문화 체험, 미식 콘텐츠 등을 운영하며 한국 장류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대표 발효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참여형 장 담그기 체험과 K-sauce 미식 마스터클래스 등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핵심 프로그램인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과 전통장 문화학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간 미디어퍼사드와 공연, 아간 장터 등 체험형 아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빈집 재생 스테이 등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축제의 체류 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운', 지역 산후케어 거점 도약

남원시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이 이용 산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부를 넘어 지리산권 산모가 처음으로 입소해 지역 거점 산후조리 시설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운'은 지난 1월 첫 산모 입실 이후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회복을 돕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최근 이용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감염관리 부문이 10점 만점, 시설·청결도 및 전반적인 서비스가 9.8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균 9.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원시는 지리산권 유일의 분만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분만 취약지 해소와 공공 산후케어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리산권 시·군 산모들까지 포용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준비, 최근 전담 구내군 산모가 처음으로 입실함에 따라, 전부를 넘어 지리산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리산권을 아우르는 광역 공공 산후케어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것으로, 남원시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제1차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순창소방서,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2026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안) △2025년도 재난관리 실행 계획(안) △제2회 육전골빛꽃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제4회 순창군민의 날 안전관리계획(안)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 안전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 개최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아간 미디어퍼사드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스포츠메카' 명성 있는 봄맞이 대정비 돌입

순창군이 본격적인 봄철 스포츠 시즌을 맞아 관내 체육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단장과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군은 3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팔덕다용도구장, 삼진장과 크골프장 등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시설 13개소를 비롯해 각 읍면에서 관리 중인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시설 내, 외부에 쌓인 장기 미사용 적치물을 폐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